

섬김: 축복의 통로

성경 본문	열왕기하 4:8~17
요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9~10절).
찬송	301장(통 460장, 지금까지 지내 온 것) 427장(통 516장, 맘 가난한 사람)
이과의 목표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어떻게 섬겼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배워서, 하나님의 종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한다.



1. 생각하기

1.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치 못한 호의나 섬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II. 생각 넓히기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엘리야를 이어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활동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북방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확장해 오던 아람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곤욕을 치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구별하여 부르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진실하고 담대하게 감당했던 신실한 하나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거주하던 한 여인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아름답게 섬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수넴으로 가서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녀가 엘리사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봅시다.

1.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본문에는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귀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게돌라'로서 '위대한'(great), 혹은 '존귀한'(noble)'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묘사한 것은 아마도 그녀가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 아니라,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존경받을 만하며 신분이 높은 인물이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음을 알고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간권하다'는 말의 히브리어인 '왓타하제크'는 '달라 붙다'(hold fast), '설득하다'(persuade), '이기다'(overcome)와 같은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고려할 때, 처음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호의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수넴 여인이 계속해서 강하게 붙잡고 청하자 엘리사가 그녀의 호의를 받아들일게 된 것입니다.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권하여 음식을 대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고대 셈족에는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달려나가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창 18:1-8 참조). 하지만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하는 말을 통해 볼 때 수넴 여인이 단순히 관습에 따라 엘리사를 대접한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9절).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꼭 그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녀가 이전부터 엘리사를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룩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쉬’로서 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할 때 사용되며 ‘구별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할 만큼 간절히 그를 섬기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선지자를 알아보고 극진히 섬기고 싶어했던 수넴 여인은 정말 ‘귀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2. 수넴 여인은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엘리사에게 음식만 대접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에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 수넴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 머무르게 하자고 청합니다(9-10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종을 향한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집니까? 그녀는 그들에게 있는 기존의 방을 엘리사가 쓸 수 있도록 내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새로’ 작은 방을 만들자고 청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작은 방은 원어를 살려 새 번역이 잘 번역한 것과 같이 ‘벽으로 둘러친’ 작은 방을 의미합니다. 엘리사가 잠시 그리고 가끔 머무는 곳이니 그에 상응하게 간단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엘리사가 누워 잘 수 있는 침대뿐만 아니라, 책상과 의자와 쪼대를 두자고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구비하자고 제안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그곳에서 편히 쉴뿐 아니라, 또한 연구와 묵상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수넴 여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에 머무는 동안 아무런 불편없이 편히 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말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러한 섬김은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지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신 영적 지도자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수넴 여인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종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종이기엔 그를 세심하게 배려하며 섬긴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3.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다시 수넴에 이르러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전에 없던 새로운 방이 옥상 위에 지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그 방이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를 위한 것이니 그곳에서 마음껏 편히 쉬라는 말을 건넵니다.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 누웠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위한 그녀의 세심하고 극진한 배려에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에 감동을 받아 그녀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사환 게하시에게 그녀를 불러오게 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극진히 나를 섬겨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으니 말하십시오.” 수넴 여인은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종을 섬긴 것이 아니기에 아무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수넬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극진히 섬겨준 것과 같이, 그 여인을 간권해서라도 꼭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수넬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의 섬김에 눈물 날만큼 고맙고, 몸 둘 바를 몰라할 만큼 감사해하는 엘리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넬 여인의 사정을 눈여겨 살펴본 게하시가 말을 합니다. “아,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게하시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수넬 여인을 불러 “내년 이 때쯤에 아들을 안을 것입니다”라고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이에 수넬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언적 선포를 듣고는 영접결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불쑥 내뱉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엘리사의 말이 진짜였음이 드러나게 되고, 수넬 여인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아들을 품게 안게 됩니다.

수넬 여인의 품에 안겨진 아들은 그녀의 섬김이 엘리사의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감동시켰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녀의 태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종을 극진히 섬기는 수넬 여인에게 감동을 받아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의 섬김, 이것이 우리 삶의 참다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II. 생각살기

1. 수넬 여인의 이야기는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를 섬기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2. 우리 교회 목회자(들)가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소그룹이 그러한 필요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